

유명인사 100인 서명본 한 자리에

삼성출판박물관, '책을 건네다:저자 서명본展' 열어

"상호 존중과 소통의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아쉬운 요즘, 저자 서명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인간적인 상호 존중이자 문화적 격조를 갖춘 소통 그 자체입니다."

故 중광 스님, 이여명 前 문화부장관, 시인 고은, 김지하, 소설가 김주영, 김훈, 동양학자 도올 김용옥, 배우 김혜자, 최불암, 화가 박재동 등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 학술, 연예계 인사 100명의 친필 저자서명본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삼성출판박물관에서 8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열리는 '책을 건네다:저자 서명본展'이 그것.

삼성출판박물관 김종규 관장은 이번 전시회의 의미에 대해 "혜존(惠存)이라는 말을 넣은 서명본을 다른 이에게 건네는 일이야말로, 고품격의 문화적 소통 행위"라고 말했다.

자신의 저서를 일부러 낫추어 일컫는 '졸저(拙著)'라는 표현, 책을 받게 되는 상대방을 높이면서 겸양의 뜻을 담은 '혜존(惠存)'이라는 표현 등에서 바람직한 소통의 문화가 저자 서명본 및 증명본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을 잘 알 수 있다는 것. 김 관장은 "이번 전시회는 단순히 작가 교류한 유명 저자의 친필 서명본과 만나는 점을 넘어서, 바로 그러한 보다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관장이 친본 있는 저자들로부터 수 십년간 받은 서명본 가운데는 저자의 개성이 묻어있는 책들이 적지 않다.

화가 박재동은 자신의 책에 서명과 함께 김 관장의 얼굴을 그려넣었고, 전각가 정병래는 김 관장의 이름을 전서체로 썼다.



삼성출판박물관 김종규 관장.

김 관장에게 책을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은 도올 김용옥. 10여 종에 이르는 자기 저서 대부분을 보냈으며 서명과 함께 그림을 꼭 같이 그려넣었

다. 가장 오래된 책은 1972년 효당 스님이 쓴 <원효대사반야심경경원소(元曉大師般若心經復元疏)>다.

저자 100명 가운데 10명은 이미 고인이 된 작가들. 작고한 구상 시인은 받는 사람 이름이나 날짜 등은 모두 빼고 작가 이름 두 글자만 쓰고 인장을 찍었다. 김 관장은 "지금도 의형(義形)으로 모셨던 구상 시인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겁다. '인연을 살려 줄 일라'는 가르침을 주셨다"고 회고했다.

김 관장은 "저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힘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인간관계라는 가르침을 얻었다"며 '책 사랑'을 당부했다. 김 관장은 이번에 빠진 책을 모아 내년 12월 전시회를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 (02)394-6544

김성우 기자

"첫 졸업생 자부심 새기세요"

삼보조계종, 제1기 승가대학 졸업식



7월 28일 열린 삼보조계종 승가대학 제1기 졸업식 및 임원 임명장 수여식.

대한불교삼보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은 7월 28일 김해 목화예식장에서 '제1기 승가대학 졸업식 및 종단임원 임명장수여식'을 봉행했다.

사무총장 법경 스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 원로회장 정안 스님, 원로위원장 금산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장 스님은 대화사를 통해 제1기 12명의 졸업생에게 "종단 승가대학 첫 졸업생이란 자부심을 마음에 새겨 부처님의 혜명을 바르게 이어가시는 수행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졸업식에 이어 6대 중앙총회의원 임명장 수여 및 교수 강사 위촉장 수여 식도 열렸다. (055)338-0089

김성우 기자

한·몽 대학생 몽골서 보살행

조계종복지재단·참사랑봉사단 공정여행봉사

한국과 몽골 대학생이 몽골 빈민촌 일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관심을 모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과 동국대학교 참사랑봉사단(단장 이준세)은 8월 4~14일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얀주르흐구 빈민촌 일대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봉사단은 한국과 몽골 대학생 4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들은 몽골의 지적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 캠프, 낙후된 초등학교 시설 수리, 빈민촌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연합 봉사활동은 국내최초 공정여행봉사라 눈길을 끈다.

'공정여행봉사'란 봉사활동이 현지경제 및 사회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현지환경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봉사활동을 일컫는다.

대오 스님은 "매년 약 1만여 명, 300개 이상의 단기해외봉사단이 가난한 나라에서 하는 일회적·시혜적인 봉사활동은 진정한 도움이 되기도 힘들고 저개발국가 주민들의

의존심만 더욱 높일 수 있다"며 "재단과 봉사단은 대안적 해외봉사문화 만들기 위해 작년부터 공정여행봉사단을 파견했으며 앞으로도 현지 경제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월정사 산사음악회

평창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8월 14일 오후 8시 '산사와 클래식'의 만남 공연을 개최한다.

올해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마무리하는 이번 공연에는 실내악단 '조이 오브 스트링스'를 이끄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 이탈리아 오페라와 콘서트 무대에서는 메조소프라노 박선영 등이 등장한다. 연주곡은 모차르트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13번, G장조, K.525', 바르톡의 '루마니안 댄스', 나폴리민요 '그녀에게 내 말 전해주오', 비제의 '하바네라' 등이다. (033)339-6800

김성우 기자

실버북카페 '삼가연정' 오픈

서울노인복지센터 전략 사업으로 추진... 8월 18일 개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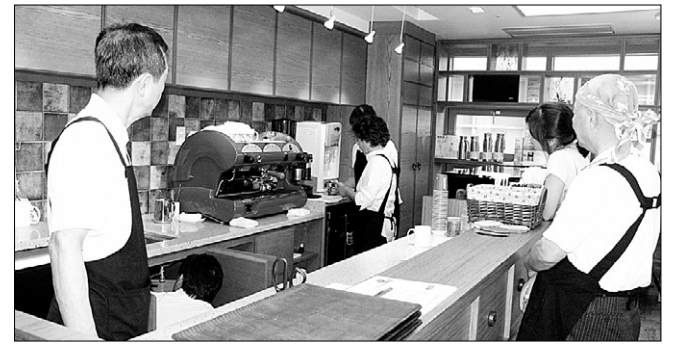
어르신들을 비롯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실버북카페가 오픈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8월 3일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SK허브 1층에 실버북카페 '삼가연정(三嘉連亭)'을 오픈했다.

서울시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삼가연정은 사회적 기업 형태로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 JOB FAIR와 센터 내부 홍보를 통해 공개 채용된 60세 이상 실버인력 16명과 관리자 1명이 직접 음료 제조와 판매를 담당한다.

삼가연정은 전문 공급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시중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되는 고급 재료를 낮은 단가로 제공받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신제품 개발로 제품의 질과 청결유지에 특별한 신경을 쓰고 종로구 내 위치한 기업에 배달 서비



노동부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홍보를 통해 공개 채용된 어르신들이 실버북카페 '삼가연정'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다.

스를 제공하는 등 전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북카페는 아침 일찍 활동하기 시작하는 노년기의 특성을 활용, 오전 7시에 개장하며 인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아침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삼가연정은 종로 실버문화벨트와 인사동 전통문화보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고령자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일하는 노인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북카페 운영으로 마련된 수익은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사회공헌을 위해 쓰일 계획이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난 6월 오픈해 운영 중인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와 삼가연정 개소식을 8월 18일 진행할 예정이다. (02)739-9501

이나은 기자

영덕서 하계의료봉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하계의료봉사 장면.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8월 5~9일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리 일원에서 하계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 5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농촌 주민들을 위한 건강검진, 응급처치 교육 및 진료 활동을 펼쳤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의료 기기와 약품, 물품 등은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지원했다.

조동섭 기자

정도원, 노前 대통령 100재 봉행

김해 봉화산 정도원은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 100일째 되는 8월 30일 오전 11시, 고인을 기리는 100재를 봉행한다.

정도원 선진구 원장은 "노前 대통령의 생전 업적을 기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고인

의 왕성극락을 발원하는 의미에서 100재를 올리기로 했다"며 "지역 불교계와 협의해 고인을 위한 추모각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도원에는 최근에도 평일 3000여 명, 주말 5000명 가량이 방문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해인사 도각 스님 영결·다비식 봉행

합천 해인사 도각 스님(前 조계종 중앙총회의원)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8월 4일 해인사에서 해인총림장으로 봉행됐다.



해인사 도각 스님 영결·다비식이 8월 4일 해인총림장으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총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한 종단 중진스님과 해인총림 사부대중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도각 스님은 1957년 전남 진도에

서 출생해 1979년 입산했다. 1983년 해인강원을 졸업, 1998~2006년 제12~13대 조계종 중앙총회의원을 지냈다.

스님은 1980년 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으며, 2000~2001년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사무총장을, 2002~2006년 남북교류 협력위원장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노인요양원 삼천사·인덕원이

어르신을 모십니다

불교전문노인요양원 인덕원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해동의 영산으로 불리는 북한산 자락에 기존 건물을 신개축하여 국내 최대의 300명상 규모와 최첨단 시설, one-stop 토탈케어서비스를 갖춘 노인요양종합복지타운을 세워 어르신을 모십니다.

인덕원은 분야별 전문교육과 불심을 두루 갖춘 150여 명의 전문 인력이 맞춤형 케어로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입소어르신을 부처님처럼, 내 부모님처럼 섬깁니다.

인덕원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보살행으로 실천하여 어르신과 가족의 아픔은 나누고, 행복을 만드는 불교전문노인요양원입니다.

■입소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판정받으신 분

■입소문의 : 02)385-8205, 02)3156-7500

삼천사·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0(은평뉴타운지역 내)
www.idw.or.kr